

농산물 안전분석실 시범 운영

익산시, 생산단계 463종 잔류농약 검사로 '건강밥상' 보장

익산시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역 신뢰도 향상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다음 달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내년 농산물 지역인증제 도입에 따른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안전분석실을 홍보하고 농약 안전사용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한다.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내에 270㎡ 규모로 올해 상반기 구축됐다. 센터는 질량분석기 등 정밀분석 장비를 갖추고 최근 전문인력을 채용해 이달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MS)를 시행 중에 있어 작목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적용 대상 작물이 아닌 농약을 살포할 경우 0.01ppm 이상 검출되면 농산물은 폐기 또는 파쇄로 처분되어 농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 463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만 유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산물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은 익산시에 주소지 또는 농지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시범 운영 기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출하 10일 전 적정량의 농산물 시료를 안전 분석실에 의뢰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MS) 등 농산물 안전기준 강화로 최근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우리 지역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20일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장병 30여명을 초청해 성산면 간치벌 농촌체험마을에서 환경정화활동과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공군 8전투비행단 문화체험

군산시, 간치벌농촌체험마을 · 근대역사박물관 등 탐방

군산시는 20일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장병 30여명을 초청해 성산면 간치벌 농촌체험마을에서 환경정화활동과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강미래체험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탐방 행사를 진행했다.

오전 미공군 장병들은 간치벌 농촌체험마을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 후 마을에서 준비한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따라 인절미떡, 쌀장정(오단다) 만들기 등 시식 체험을 하며 한국 음식 문화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또 오후에는 미군 장병들이 금강미래체험관에서 전시관과 전망대를 관람하고 이어 근대역사박물관을 둘러 군산의 역사와 관광자원도 탐방했다.

특히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과거 해상 물류유통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과 전국 최대 근대문화자원을 소개받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미공군과 지역사회간의 친선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미공군이 군산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군산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8월에 미공군 장교 30여명을 대상으로 시장설명회와 군산 근대문화시설 등 탐방 행사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미군과 친선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의회 의장단, 2024 시정 상생발전 모색

주요 현안사업 설명... 내년 시정 발전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 이뤄져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20일 2024년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리는 시정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4년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간담회는 각 국소단체장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들과 향후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익산시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최종오 의장은 "시의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시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정 주요사업에 대해

계속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내년에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우리시가 한걸음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옥산 당북리 어울림센터 준공식

군산시는 지난 18일 옥산면 당북 저수지 일원에서 당북리 농촌다움복원사업으로 조성된 어울림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당북리 농촌다움복원사업 추진위원회(두건민위원장)가 주최하고 지역주민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기념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20억을 들여 당북 저수지 일원에 어울림센터 건물 1동과 수변데크



를 설치하고 그 주변의 빈집 철거 및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당북리 어울림센터는 농촌다움복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로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 지역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며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농촌가치 보전에 집중하는 사업이다.

옥산면 당북리는 아파트와 농촌 마을주민이 함께 거주하는 도농 복합마을로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이번 어울림센터 준공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어울림센터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청년 서포터즈 수료식 개최

군산시는 지난 17일 군산시간여행축제 청년서포터즈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 서포터즈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의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축제에 반영,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군산시가 올해 처음 운영한 프로젝트다.

SNS 활동 및 축제 관광분야에 높은 관심을 지닌 청년 중 군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군산시 소재 대학교 학생 대상으로 모집하여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간 운영해왔다.

청년서포터즈는 △시간여행 축제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공유, △축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축제홍보, △축제 기간 중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방문객 안내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을 펼쳐왔다.

특히, 군산비빔국수마라톤대회 풍광보리축제, 수제맥주페스티벌, 군산 시민의 날 등 지역 주요행사 시 집중 홍보 활동을 추진했으며 올해 시간여행축제의 주제'군산시간여행, 100년의 미(昧)'를 찾아서도 청년서포터즈 기획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수료식에서는 전체활동의 75% 이상 참여한 10명의 서포터즈들에게 활동인증을 수여하고 우수서포터즈팀을 선정, 소정의 포상금을 시상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간여행축제 청년서포터즈는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며 "청년서포터즈는 민간 주도 축제추진 체계의 한 축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김경일 교수,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 제6강좌 펼쳐

오는 23일 오후 7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군산새만금 아카데미 제6강좌가 열린다.

이번 군산새만금 아카데미 제6강좌에서는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tvN '어쩌다 어른'과 20세기 소년 탐구생활, KBS 속보야는 TV 인사이드 등 각종 방송매체, 유튜브 등에서 인간의 심리를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나가 현재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명강사다. 이날 '상위 1%는 행복할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참석한 시민들과 해법을 찾아갈 예정이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군산시 새만금 아카데미는 인문, 교양,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저명한 강사와 시민들이 직접 만나 강의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수준높은 강좌"라고 말했다.

익산시, 3GO 이상한 교도소 수험생 등 치유의 시간 선물

익산시는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3GO 이상한 교도소 행사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3GO(3) 이상한 교도소는 '도전하고, 놀고, 상받고'를 줄인 말이다. 단어 그대로 도전을 통해 신나게 놀고 상까지 받을 수 있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총 2,000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수험생은 60여명이다. 이들은 에어비문스, 스탬프 릴레이, 에어볼 추첨 등을 진행했다.

이들이 도전에 성공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상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번 행사는 16일 치러진 수능 수험생들이 도전에 성공할 경우는 더욱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수험생 100 학생은 '교도소 세트장에 친구들과 시터부터 버스를 타고 왔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 지역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가 많이 진행되어 친구와 함께 행복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